

## 주일의 말씀

###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창영 바오로 신부  
매일신문사장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당황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군중들처럼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만이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가장 완전한,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의 초점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물음에 맞추어 깊이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애주의자로, 어떤 사람들은 정치개혁가로, 어떤 사람들은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의 한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내 주님이심을 고백하기위해 미사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더 잘 따르기 위해 성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닮으려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내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일의 만남이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만남이었는가? 아니면 진정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만남이었는가를 깊이 성찰해 봅시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순간 우리의 신앙을 더욱 새롭게 고백해야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살아 있는 신앙체험 속에서 우리나라오는 그런 신앙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한결을 더 나아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더욱 성숙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의 가장 실존적인 엄청난 물음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참된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이 물음에 진정 무엇이라고 답변 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 생명의 말씀

당신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루카 9,20 참조

즈카 12,10-11: 13,1 갈라 3,26-29 루카 9,18-24.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2010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요약)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태 5, 9)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정의와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하느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며, 공동체 안에서 참된 사랑이 총체적인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올해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선택한 전쟁은 너무나도 비참하였고 한반도에 수많은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깨어진 평화는 회복될 줄 모르고 긴장과 갈등을 계속하더니 마침내는 3월 26일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평화로운 상황이 매우 취약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화해와 일치를 통한 평화로운 공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실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대결적 정책을 중단하고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이 갖는 한계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대북정책의 기초를 보다 유연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은 남한과의

긴장 국면을 내부 정치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포기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군사력을 동원하는 무력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며, 대립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펴보고, 새터민들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을 미워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2코린 5, 18) 2010년에 맞이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인 오늘, 한국 천주교회의 모든 신앙인들은 이 화해의 임무를 어느 때 보다도 훌륭하게 수행 할 마음을 갖추고, 이 나라 이 땅에 평화와 화해와 일치의 하느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 운 회 주교

결대로 포기하지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 오늘의 미사

**연중 제12주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 입당성가

39 하나되게 하소서

#### 화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봉헌성가

513 면병과 포도주

#### 영성체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 파견성가

455 주님을 따르려 모여 있는 우리

### 영성의 향기

#### :: 하느님 체험의 한계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체험한다 하더라도 많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 깨닫는 하느님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체험한 것이 하느님 전부를 다 아는 것인 양 단언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환시나 환청, 환각이나 사적계시를 일부 체험한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은 우리의 내면생활에 교만을 가져다주기 쉽고 겸손하게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므로 하느님께 받은 은총이나 은사, 환시, 환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통적으로 교도권은 사적계시가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늘 가르쳐 왔습니다. 사적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반포되는 신앙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 사랑과 현존과 역사에 대한 체험이며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아주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하느님 체험입니다. 사적계시는 자신의 시대와 환경에 맞는 영적여정을 찾아 가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유명한 신비가나 영성가들은 자신을 하느님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지도 않았고 순간적인 달콤한 체험을 찾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백준

- 권 가타리나 수녀 -

### 짧은 글 깊은 생각

####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 됩니다.



여러분은 일 때문에 기진맥진해 있거나 심지어는 자신을 대단히 혹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사랑으로 맞물려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 없이 일하는 것은 노예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오만하게 되는 것, 이기적으로 치닫는 것은 쉽습니다. 아주 쉽지요. 그러나 우리는 보다 고귀한 것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명심합시다. 우리의 행동에 지침을 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진정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서도 가난한 이를 첫 자리에 두고 있는가?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한 데서 오는 가난이 아닌 가난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 자체로 고통인 가난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부족한 것이 부모나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이, 단순히 옷이나 음식이 아닌 그 무엇이라면 - 그것이 사랑이라면 -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느님과 홀로 있기 위한 깊은 침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리성의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책에서도, 생각에서도, 기억에서도 떠나고 모든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 하느님의 사랑스런 현존에만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침묵, 비움의 정지 상태에 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하는 동안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은 기도를 방해하지 않으며 기도 또한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향해 아주 조금만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지금 저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고백도 훌륭한 기도인 것입니다. 백준

- 마더 테레사 수녀 -



## † 사제서품식 †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성실히 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0. 6. 24(목) 오전 10시 • 장소 : 성 김대건 기념관



김형수(요한)  
성 토마스성당  
6월 24일(목) 19:30



노현석(베드로)  
윤일성당  
6월 24일(목) 19:30



최재원(펠릭스)  
두산성당  
6월 25일(금) 19:30



이기혁(도미니코)  
월성성당  
6월 25일(금) 19:30



최종욱(다미아노)  
형곡성당  
6월 27일(주일) 10:30



이호(안셀모)  
남산성당  
6월 27일(주일) 10:30



이종욱(F.헤비에르)  
내당성당  
6월 24일(목) 18:00



황인욱(마티아)  
신녕성당  
6월 27일(주일) 10:30



조세근(라피엘)  
성 김대건성당  
6월 24일(목) 19:30



김태완(안드레아)  
옥산성당  
6월 27일(주일) 10:30



이동철(대안드레아)  
복현성당  
6월 25일(금) 19:30



김병주(제노)  
윤평성당  
6월 27일(주일) 10:30



오영재(요셉)  
이동성당  
6월 27일(주일) 10:30



이영승(이우요사)  
회원성당  
6월 24일(목) 19:30



김기환(미카엘)  
복자성당  
6월 24일(목) 19:30



여현국(티모테오)  
이곡성당  
6월 25일(금) 19:30

## 부제서품식

• 일시 : 2010. 6. 23(수) 오전 10시 • 장소 : 성 김대건 기념관

박남일 (바오르) 큰고개성당  
이진희 (사도요한) 청도성당  
장명훈 (론지노) 두류성당  
이대로 (레오) 이곡성당  
박동찬 (미카엘) 내당성당

김경덕 (베다) 고산성당  
사공병도 (베드로) 남산성당  
김현구 (미카엘) 경산성당  
성영신 (보나파시오) 상인성당  
오창영 (바오르) 계산성당

박재희 (세례자요한) 평화성당  
고태권 (그레고리오) 복현성당  
황은모 (사도요한) 범물성당  
김병홍 (세영알렉시오) 대신성당  
박상혁 (프란치스) 형곡성당

###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약기(바오르) 011-514-3855

### 밝은 눈 안과

원장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전문의 당일수술·퇴원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 미소인치과

원장 이종현(프란치스코)  
송선희(안나)  
범어네거리 교원공제회관 건너편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752-7575  
(화·목 ▶ 야간진료)

### 노동부 지정 푸텍스 요리직업 전문학교

국비지원(계좌제)  
취업반 창업반 자격증반  
위치▶지하철 르노개역 1번출구  
원장 김경희 스페리아나  
Tel : 053)953-9800

###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253-7476  
방 프란치스코 (교우님 우대 할인)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 치질·치루·항문병 수술 선일외과의원

원장, 전문의:배선익(사도요한)  
TEL:745-6633~4  
지하철 2호선 범어역  
범어네거리, 수성못방향 → 300m

### 결혼정보회사

혼인을 앞둔 교우 자녀와  
엘리트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주)코리아알트만  
박화순(오틸리아)  
범어네거리  
코리아알트만  
뉴영남빌  
그랜드호텔  
황금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  
TEL 743-4488 FAX 744-1594

### 20년 역사의 SHINCHUN 이 운영하는

DINE ONE 多人園  
나만을 위한 최고의 식사  
단체급식 / 출장연회 / 프랜차이즈  
www.shinchun.co.kr 문의 ☎ 956-9900